

여신의 과일 패션프루트 수확 한창 벼 병해충 피해 예방 총력

남원시, 8월부터 본격 수확... 소비자 인기·고소득 작목 주목

남원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아열대 과수인 패션프루트가 도입되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돼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패션프루트

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에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2014년부터 패션프루트가 도입되어 2024년에는 노력절감 및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분수정에 화분개별을 활용한 기술보급과 패션프루트 병해충 물리·화학적 종합방

제 기술보급을 8농가 0.84ha에 대하여 추진하여 패션프루트의 안정생산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패션프루트 기능성 확보를 위한 재배실증을 진행중에 있으며, 전북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화분개별에 대한 지역적응성과 기술정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남원 패션프루트에 대한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생육단계별 다양한 영농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배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ONE푸드팀 담당 이준관 농촌지도사는 "아열대 과수 패션프루트가 고소득 작목, 지역특화 품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장애인복지관서 보양식 배식 봉사 펼쳐

장애인·보호자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소통행정

최영일 순창군수와 손종석 군의회 의장, 군의원들은 6일 순창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경호) 친누리 식당을 찾아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복지관 참여자는 "순창에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오늘은 군수님이 직접 배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해보다 유독 무더운 여름 장애인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순창군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장애인과 당사자 가족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작업 재해예방·안전보건교육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지난 7월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농업인안전 365일과 안전의식 확산을 목표로 남원시 4개 면의 생활개선회 회원 16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했다.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농업인 재해보험 3종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다.

특히,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의 절반 이상은 농작업 도중 감염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2022년 질병관리청 통계, 각각 53.1%, 50.8%), 올해 전체 온열질환 예방법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확대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의 소규모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야외 농작업 중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용 장갑과 토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밴스카프, 분진 및 농약 살포 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마스크와 같은 개인 안전보호장비의 실습을 병행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학습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 소속 김은호 농촌지도사는 "여름철 무더운 시기에 맞는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적기 집중 공동방제 위해 2회 걸쳐 항공방제 추진

임실군이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차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완료하고 8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2차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30%는 지역농협에서 보조하고 농가는 40%를 부담한다.

방제 면적은 1차 2,380ha, 2차는 2,364ha로 총 4,744ha를 대상으로 방제를 추진한다.

한편 2차 방제는 살균제, 살충제 외에 도복 방지 및 미질 향상 등 벼 후기 생육 도모를 위해 영양제를 추가 지원하는 등 병해충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최근 잦은 강우 및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출수 전 철저한 방제로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출수 후에는 기상 상황에 따른 농가별 보원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회에 걸쳐 추진하는 벼 항공방제는 총사업비 10억원으로 30%는 군에서 /임실=진중영 기자

임실군, 폭염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임실군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에는 안부 전화 및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폭염 시 주의 사항으로는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활동을 삼가고 충분한 물 섭취하기,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보충하기, 무더위 습대 이용하기 등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 대비 건강 수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

/임실=진중영 기자

2025 임실방문의 해 BI·슬로건 개발 보고회 개최

임실군이 지역관광명소인 옥정호 생태공원,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자연휴양림, 오수 의견관광지 등을 알리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임실방문의 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임실군청 군수실에서 임실방문의 해 BI 및 슬로건 개발 보고회를 가져, 전국 관광객들의 임실지역 관광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BI와 슬로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심민 군수는 "지방소멸의 사대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의 최고 방법은 관광객 유치로 생각한다"며 "지역관광 자원 홍보에 힘써 줄 국민이 한 분 이상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재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중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찾아가는 지적 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순창군은 2024년 내동·대가·두승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일괄 지적확인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 경계협의를 위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현장사무소는 내동지구(8.19~8.22), 대가지구(9.4~9.5), 두승지구(9.9~9.10)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되며,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 경계 협의와 함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의 경계 협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통한 측량 결과와 기존 지적공부 도면을 중첩한 자료를 비교해 경계를 설명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남원시 진행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꿈'은 8월부터 12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이하 'ACC재단')과 함께 ACC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How Fun(하우펀)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ACC재단은 지난 3월 콘텐츠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5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10'에서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의 작가 연계 교육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꿈'에서 ACC 어린이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10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남원시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며, 남원시 누리집에서 매월 1일 신청할 수 있다. '꿈'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문의는 전화(063-620-5716)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